

慶尙北道 地緣產業 開發에 관한 研究

朴 仁 鎬

嶺南大學校教授, Ph.D.(地域經濟學)

李 哲 雨

精神文化研究院, 研究員

- I. 序 言
- II. 地緣產業 開發의 理論의 考察
- III. 慶尙北道 地緣產業分布 및 開發 適性業種
- IV. 要約 및 結言

I. 序 言

1. 研究 目的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經濟開發計劃과 國土綜合開發事業으로 현저한 發展을 이루었다. 그러나 經濟開發政策은 주로 總量的 高度成長을 추구하였고, 地域開發 方案으로서는 地域의 均衡開發에 앞서 據點開發方式을 採擇함으로써 여러 가지 社會·經濟的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특히 地域別 開發 또는 成長隔差를 심화시켰다.

물론 한 國家의 經濟는 각 空間的 單位가 지닌 개개 經濟量의 總和로써 이루어지고, 空間的 單位의 經濟量은 또한 여러 가지 經濟的 要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經濟發展은 地理的 차원에서 볼 때 全國家의 規模面과

各 地域의 規模面에서 서로 상이한 發展樣狀을 띠게 된다(金安濟 1974, pp.27-64). 따라서 地域開發 政策에 있어서 地域隔差의 深化現象은 成長 그 자체에 있어서 불가피한 附隨現象으로 시인될 수도 있다(Hirschman 1969, p. 624). 그러나 이와 같은 地域隔差의 深化는 장기적으로 볼 때 社會構成員間의 異質性 深化, 地域間 文化的 分離性의 유발, 엘리트의 일정 地域內로의 집중으로 階層의 不均衡을 가져와(Westergaard and Resler 1975, p.182) 國家發展을 저해하게 되므로 地域隔差의 深化現象을 억제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地域開發 方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研究는, 地域間의 不均衡을 시정하기보다는 成長據點과 周邊地域과의 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킨 成長據點開發方案을 지양하고 內發的 開發(development from within)의 開發哲學에 기반을 둔 地緣產業開發方案에 대하여 理論的 體系를 정립하고 나아가 均衡開發을 위한 政策的 代案으로써 慶尙北道를 事例研究 對象地域으로 선정하여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業種別, 地域別 分布現況 및 특성을 분석하고

地域別 開發適性業種을 선정하고 開發方案을 제시함으로써 地域開發 및 地域隔差 解消政策에 다소라도 반영되었으면 한다.

2. 研究範圍와 方法

本研究는 地域發展을 위한 內發的 開發 혹은 上向式開發(development from below)의 開發哲學에 基盤을 둔 地緣產業 開發方案의 理論的 體系를 整理하고 慶尙北道를 事例研究 地域으로 선정하여 地緣產業을 조사하고 業種別·地域別 分布現況 및 特性을 분석하고 地緣產業의 概念과 地緣產業이 일조일석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地域事情을 고려하여 새로운 地緣產業도 選定, 內實化한다는 立場에서 地域別 開發適性業種을 선정하고 地緣產業의 開發方案을 地域的 측면과 行政 및 財政的 支援側面에서 강구하고자 하였다.

研究方法은 地緣產業 開發方案의 理論定立을 위해서는 國內외의 각종 文獻研究를 통한 方法을 채택하였고, 理論的 體系를 基盤으로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慶尙北道의 地緣產業에 관한 자료는 기존의 統計資料를 綜合·改作하여 이용하였다.

II. 地緣產業開發의 理論的 考察

1. 地緣產業開發方案의 背景

地域開發이란 「一定規模의 地域을 對象으로 그 地域의 成長潛力(potentiality)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生活環境을 정비함으로써 住民의 福祉를 向上시키고자 하는 努力」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國民經濟成長을 極大化하는 能率성과 所

得의 均等配分을 위한 衡平性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하겠다.(Alonso 1968, pp.1-2)

오늘날 地域開發政策은 지난 20여년간 추구해 온 開發方式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開發哲學의 轉換을 시사하고 있다. 즉 “下向式 開發方案에서 上向式 開發方案으로의 轉換”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政策(regional policy)은 空間 또는 地域의 바람직한 組織, 發展 및 利用에 이르기 위하여 國家나 그에 준하는 公共機關이 설정한 목표에 상응하여 手段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意圖的 行爲라고 定義할 수 있는데(Brösse 1975, pp.5-6) 우리 나라 地域政策 特性 중의 하나로서 역시 地域開發政策의 決定 및 施行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전국을 하나의 開發單位로 보고 中央政府가 計劃 및 開發의 主體가 되어서 시행하는 總量的인 下向式 開發方式(development from above, centre-down paradigm)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강력한 中央集權의 行政體制에서 연유한 것이나(柳佑益 1983, p.93) 제한된 資源으로는 전국에 걸쳐서 동시에 開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開發途上國家의 地域計劃家들에게 매력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下向式 開發方案의 性格 規定에 있어서 核心的 條件이라고 할 수 있는 成長據點開發方式(Growth centre strategy)를 基本的 開發戰略으로 채택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大韓民國政府 1971 : 國土開發 研究院 1981).

이러한 下向式 開發方式의 문제점으로서는 다양한 地域性(regionality)을 무시하고 效率性만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集中”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를 획일적으로 지배한다는 점과 地域隔差 解消方案으로서는 成長據點開發政策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成長의 空間擴散이 매우 한정적이거나(Moseley 1972) 오히려 成長據點과 그 背後地間의 逆流效果(backwash effects)가 波及效果(spread effects)를 증가한다는(柳佑益 1983, p.95) 經驗的 事實을 들 수 있다. 즉 下向式 開發方式은 그 推進過程에 있어서 지나치게 全國的으로 波及效果에 치중한 나머지 상이한 地域性에 맞는 개발을 상대적으로 동시하여 地域住民의 입장에서 볼 때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開發事業은 他律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地域住民들의 協調나 參與를 의면하게 되어서 開發政策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결론적으로 地域開發은 開發效果의 最終 受惠者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基本需要理論(basic needs approach)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基本需要理論은 地域주민의 自主的 參與와 요구에 부응하여 그 地域內에 賦存資源, 勞動力, 傳統的 技術 등 그 지역의 潜在力을 최대한 활용하여 主體的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上向式開發(development from below) 혹은 內發的開發(development from within)의 開發哲學(philosophy of development)에 기반을 둔 것이다(崔相哲 1981, p.9).

內發的 開發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첫째, 輸出代贊方法으로써 그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財貨 중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財貨는 될 수 있는 한 地域內 生産으로 바꾸어 創出된 財貨가 그 地域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生産—流通—消費되는 과정의 空間的 統合, 즉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財貨는 地域內에서 유통되고 소비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地域市場을 확보하고, 셋째 地域에서 생산되는 財貨는 일 단 加工度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附加價値를 地域內에서 순환되게 하여 地域內 經濟活

動을 活性化시켜 經濟的 蓄積을 증대시켜야 한다(淸成忠男 1978).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賦存資源, 勞動力 및 技術을 동원하여 재화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所得과 雇傭의 파급이 涸出되지 않고 地域經濟에 再投入될 수 있는 力動關係를 가지는 地緣產業(崔相哲 1981, pp. 19-20)에서 內發的 開發의 방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地緣產業의 概要

과거의 下向式 開發方式에서 上向式 開發方式으로의 開發哲學의 전환과 이미 언급한 地域開發의 目標達成이라는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地緣產業을 開發政策의 代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地緣產業의 概念, 類型, 地域에 미치는 波及效果 등을 고찰함으로써 다소 規範的이기는 하지만 地域開發方案으로서의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고자 한다.

地緣產業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日本學者들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本稿에서도 이론적 개요에 대해서는 이들 몇 사람의 研究結果¹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地緣產業의 概念에 對하여 약간의 見解 차이는 있으나² 대체로 비슷한데 이를 종합해 보면 地緣產業(residentiary industry)이란 「그 지역의 賦存資源, 勞動力, 資本, 技術 등을 이용

¹ 淸成忠男, 「地域의 變革と中小企業」(上), 日本經濟評論社 1975, pp. 128~129.

———, 「地場産業의 現代的意義」 「地域開發」, 1980年 7月號, pp. 1~3.

山崎充, 「變する地場産業」, 日本經濟新聞社, 1974, p. 47.

青野壽彦, 「地場産業と地域 振興」 「地域開發」, 1980年 7月號

² 山崎充은 傳統性을 概念規定에 포함시켰으나 淸成忠男과 青野壽彦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製品에 대해서도 山崎充은 特産品이라고 했으나 淸成忠男은 消費財라고 한 점이 差異點이라고 하였다.

하며, 생산 과정에서는 사회적 分業體制를 가지고 傳統的으로 企業集團인 産地를 형성하고, 그 지역의 독자성을 가진 특산품을 생산하여 外部地域에 판매하는 産業」 즉 供給面에서는 地域性, 需要面에서는 脫地域性을 가지며 대체로 勞動集約적이고 技能에 의존하며 中小企業的 特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概念定義를 할 수 있다.

이상의 概念規定에서 볼 때 地緣産業의 유형은 立地와 産地의 역사적 형성방식 및 기술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淸成忠男 1975, p.129), 먼저 立地에 의해서는 大都市型 地緣産業과 地方都市 및 農村型 地緣産業으로 구분할 수 있고, 産地의 歷史的 形成방식에 의해서는 傳統的 在來型, 在來化된 外來型, 변화된 在來型, 新興型 등 4개 유형으로, 技術의 形態에 의해서는 手工業과 非手工業의 형태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傳統的 在來型和 在來化된 外來型은 일반적으로 天然資源과 경제·사회·문화적 풍토와 관계가 깊으며 立地의으로 볼 때 대체로 農村型 地緣産業이 대부분이며, 工藝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手工業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地緣産業은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波及效果를 미친다. <그림 1>의 地緣産業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먼저 經濟的 波及效果를 지역 주민의 所得增大라는 관점에서 보면 地域內에서의 雇傭과 就業機會의 創出에서 찾을 수 있다. 雇傭과 就業機會에 있어서는 量的인 면뿐만 아니라 質的인 면에도 波及效果를 미치는데, 量的인 면에서는 해당 地緣産業에만 국한되지 않고 原料를 공급하는 農林水産業, 鑛業뿐만 아니라 商業 서비스業 등에도 雇傭과 就業機會를 창출한다(靑野壽

彦 1980, pp.4-5).

質的인 면에서는 專業勞動力 외에 농한기 유희노동력, 가정주부, 老齡層 勞動力 등 地域內의 다양한 勞動力을 흡수함으로써 近代的 産業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勞動力의 활용도 가능하며, 간접적으로는 주민이 대도시로의 이동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大都市 人口過剩現象의 防止 내지 人口定着 基盤을 조성할 수 있다(柳佑益 1983,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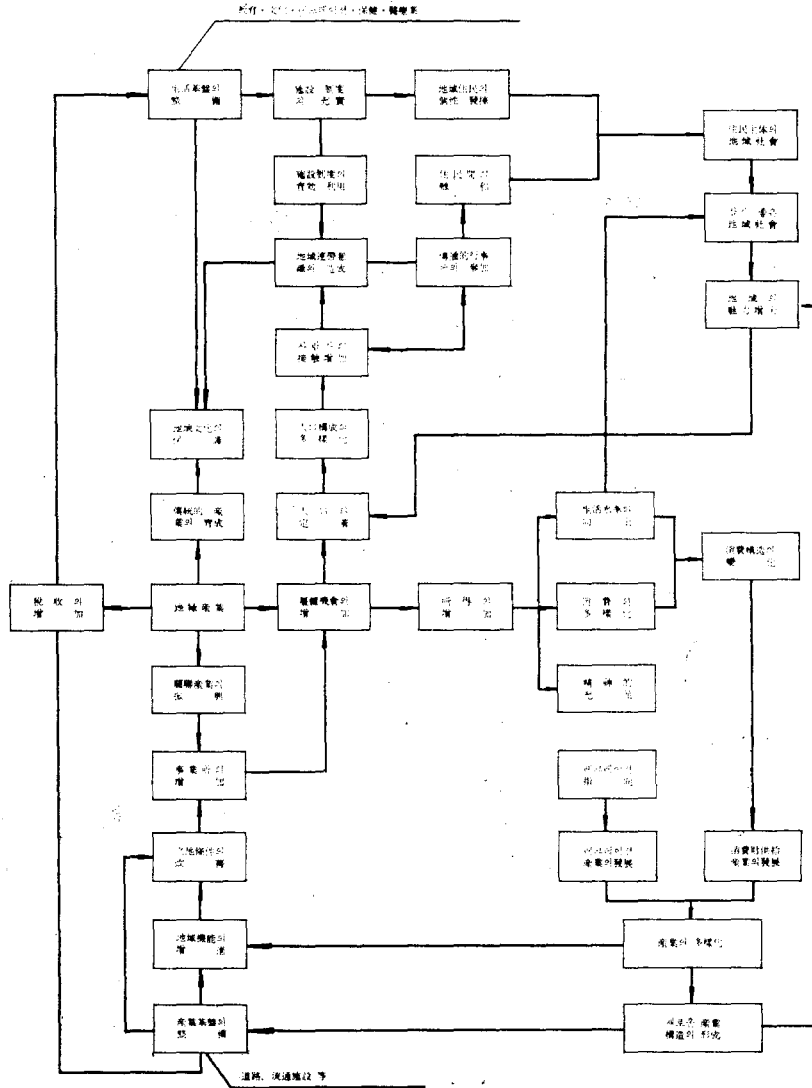
이밖에도 地緣産業은 生産費로 충당한 자금과 창출된 附加價値의 地域內 循環이 커서 地域內 經濟活動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地域內에서의 經濟的 蓄積을 증대시켜서 地域乘數效果(regional multiplier effects)를 높여 준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나친 全國的 商品化로 한 지역에서의 投資와 그 投資로 인하여 창출되는 所得의 流出現象이 높기 때문에 所得의 外部流出을 막기 위해서는 地域的 自給自足도를 높이고 空間的 統合을 통하여 지역의 對外依存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地緣産業의 사회·문화적 波及效果는 地域 住民生活의 質이 改善이라는 측면과 郷土文化의 계승 및 창달이라는 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의 經濟成長으로 所得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國民生活의 質과 文化的 欲求(cultural needs)의 高度화와 多樣化로 새로운 quality 商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quality 商品은 대체로 個別性이 강하고 小量生産的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역시 地域性이 강한 地緣産業이 quality 商品의 生産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地緣産業은 製品生産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기술과 기능을 통하여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 가는 傳統文化를 繼

그림 1 緣產業發展이 地域에 미치는 波及效果



資料 1. 青野壽彦, 「地場産業と地域振興」, 『地域開發』 1980. 7月號, p. 4
 2. 姜秉周, 「地域開發戰略으로서의 地緣産業開發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1. 再引用.

承, 창조적으로 개발 진흥시킴으로써 郷土 固有 文化를 창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민예 품 및 토산품 등 郷土資源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Ⅲ. 慶尙北道 地緣產業分布 및 開發適性業種

慶尙北道는 洛東江 本流를 경계로 西北地方은

先캄브리아기의 花崗片麻岩과 結晶片麻岩으로, 東南部는 中生代 白堊紀에 형성된 慶尙層郡으로 되어 있으며, 浦項 주변의 해안 지방은 第3期層이 분포한다. 地形上으로는 太白 및 小白山脈과 남부의 省峴山塊에 둘러 싸여 하나의 盆地를 형성하여 緯도에 비하여 寒暑의 차가 심하고 降水量도 약 900~1,100mm로 적은 편이다.

總面積은 19,424.4km²이고, 인구는 3,184,388명이며 産業 總生産額은 全國의 約 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慶尙北道의 人口比率(전국의 約 10%)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生産額의 構成은 1次産業이 45%, 2次産業 23%, 3次産業이 32%로서 전국에 비하여 1次産業의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이 특색이다. 耕地率은 18.7%에 불과하나 耕地面積上으로는 356,000ha로 전국에서 1위로 全家口數의 50%가 農業에 종사하고 있다.

製造業은 臨海地域인 浦項의 綜合製鐵所 및 그 聯關工業團地와 電子工業을 중심으로 한 龜尾內陸工業團地가 조성됨으로써 慶北 製造業開發의 主要核을 형성하게 되었으나 全國 製造業 總生産額의 5%에 지나지 않아 産業構造의 측면에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建設部 國立地理院 1983, pp.551-52).

全國의 地域先進度(regional health)³ 분석에서도 慶北은 市地域과 2개 郡⁴을 제외하고는 後進地域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蔚珍, 英陽, 安東, 盈德, 靑松, 高靈郡 등은 심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李哲雨 1981, pp.11-12). 그러므로 大邱直轄市와 浦項市 및 龜尾市 등 몇 개 지역의 成長波及效果의 空間的

³ 地域先進度(regional health) : John H. Thompson이 試圖한 economic health의 測定指標를 기호로 사회·문화적 要素를 감안한 지역의 發展度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의한다.

⁴ 慶山郡, 達城郡 등 2개 郡만이 準先進地域에 속한다.

擴散에만 의존하여 그 주변지역의 성장과 均衡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지역의 潜在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産業聯關效果(industrial linkage effects)가 큰 地緣産業을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1. 慶尙北道 地緣産業 分布現況

우리 나라의 地緣産業은 지리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한 慶尙道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朝時代의 貴納品도 慶尙道가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歷史的으로 이 지역의 鄉土資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慶尙北道는 慶州를 중심으로 하는 新羅文化圈, 伽倻文化圈, 그리고 安東을 중심으로 하는 儒敎文化 등 傳統文化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慶尙北道 1982, pp.142-143).

수십년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 오면서 조상들이 남긴 훌륭한 文化財는 물론 생활과 관련하여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각종 生活用具, 土俗食料品, 裝飾品 등 오늘날의 傳統民藝品과 土產品의 개발 측면에서 그 자원이나 소재가 풍부하다고 하겠다.

慶尙北道 地緣産業은 ① 그 지역의 賦存資源을 이용하며, ② 지역에 축적된 기술, 勞動力,

表 1 朝鮮時代 貴納品 地域別 分布

地域別	品目	貢 物	菜 材	種養菜材	計
京畿道		50	120	21	191
忠清道		89	120	20	229
慶尙道		81	173	29	283
全羅道		112	138	8	258
黃海道		84	167	21	272
江原道		91	125	12	228
平安道		44	85	9	138
咸鏡道		26	101	4	131

資料 : 慶尙北道, 「地方特産物の 發掘・保存 및 開發」, 1982, p. 142.

表 2 慶尙北道 地緣產業現況

地域別	地緣產業	地域別	地緣產業	地域別	地緣產業
慶州市	民俗工藝, 法酒	善山郡	藥酒, 당공	蔚珍郡	韓紙
金泉市	鑰器(農樂器), 포도, 過夏酒, 葛布	軍威郡	花紋席, 돛자리	英陽郡	木器, 石峴, 고추, 담배
安東市	燒酒	義星郡	韓紙, 마늘, 감	盈德郡	韓紙, 銀魚, 복숭아, 게
榮州市	葛布	尙州郡	明紬, 陶磁器, 감	靑松郡	韓紙, 陶磁器, 고추, 송이버섯, 표고버섯
浦項市	箭筒	聞慶郡	陶磁器, 葛布, 韓紙	淸道郡	陶磁器, 쇠술, 감
達城郡	莞草, 수박, 석류, 자라	醴泉郡	國弓, 陶磁器, 韓紙, 葛布	永川郡	싸리製品, 양파
高靈郡	기와, 石峴, 陶磁器	安東郡	安東布, 河回탈	月城郡	土器
星州郡	수박, 조리, 스무酒	榮豊郡	人蔘, 人造絹	迎日郡	陶磁器, 竹細品(낙시대)
金陵郡	목공工藝, 표고버섯, 莞草, 薄荷, 葛布	奉化郡	鑰器, 木工藝, 대추, 송이버섯	鬱陵郡	오징어, 山菜

資料: 慶尙北道, 「地方特産物 發掘·保存 및 開發」 1982. (現地調査結果)
 元慶烈, “朝鮮時代初期 慶尙道地域의 土産物 分布에 對한 地理的 考察,” 「春川教育大學論文集」, 第22輯 1982.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名要覽」, 1983.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誌」, 1980.
 慶北大觀編纂委員會, 「慶北大觀」, 1958.
 慶尙北道, 「慶北 特産物報告書」, 1981.
 以上資料에서 改作.

資本 등을 기초로, ③ 오랜 기간 동안 産地를 형성하면서, ④ 지역의 獨自性을 가진 特産物을 생산하여 地域內 需要뿐만 아니라 地域外 需要도 指向하는 산업이라는 概念規定에 입각하고, 立地的 측면에서는 地方都市 및 農村型 地緣産業을 調査對象으로 모두 74개 産地의 47개 품목이 선정되었다(表 2).

가. 業種別 分布

慶尙北道에는 모두 합해 47개 품목이 74개 産地에서 생산되고 있다(表 3).

47개 품목 중에서 食品類가 25개 품목(전체의 53.2%), 産地數에 있어서는 31개 地域(전체의 41.9%)을 차지하여 품目數에 있어서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食品類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감으로 3개 지역(義星郡, 尙州郡, 淸道郡)에서 생산되고 그밖에 2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는 수박 星州郡, 達城面), 고추(英陽郡, 靑松面), 송이버섯(靑松郡, 奉化郡), 표고버섯(靑松郡, 金陵郡) 등이다.

나머지 품목들은 각 1개 지역에서만 地緣産業으로 개발되고 있다.

食品類를 다시 세분해 보면 역시 農産物이 11개 품목(전체의 23.4%), 15개 産地(전체의 23.3%)에서 생산되어 食品類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이 5개 産地(전체의 6.7%)에서 5개 품목(전체의 10.6%)을 차지하고 있는 土産食品, 水産物(4개 품목, 4개 산지) 林産物, 藥材品의 순이다. 이 중에서 土産食品 5개 품목이 모두 酒類인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慶尙北道の 地緣産業 중에서 農産物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오랜 동안 우리 나라는 農業이 주된 산업이었고 그의 産業은 農業을 보조하는 機能的 役割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食品類 다음으로 地緣産業으로서 비중이 큰 업종은 工藝品으로 25개 産地(전체의 33.8%)에서 15개 품목(전체의 31.9%)를 생산하는데, 이 工藝品은 다른 業種에 비하여 품목에 대한 産地數의 비율이 166.7%로서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3 慶尙北道地緣產業의 業種別 分布現況

業種別	細分品	品目數	產地數
食品類	農產物	11 (23.4)	15 (20.3)
	林產物	3 (6.4)	5 (6.7)
	水產物	4 (8.5)	4 (5.4)
	土產食品	5 (10.6)	5 (6.7)
	藥材品	2 (4.3)	2 (2.7)
	小計	25 (53.2)	31 (41.9)
工藝品	木工藝	8 (17.0)	9 (12.2)
	金屬工藝	3 (6.4)	4 (5.4)
	土·石工藝	4 (8.5)	12 (16.2)
	小計	15 (31.9)	25 (33.8)
纖維類	織物	3 (6.4)	3 (4.1)
	其他	2 (4.3)	4 (5.4)
	小計	5 (10.6)	7 (9.4)
紙類	韓紙	1 (2.1)	6 (8.1)
	葛布	1 (2.1)	5 (6.8)
	小計	2 (4.3)	11 (14.9)
計		47 (100)	74 (100)

() 안은 構成比.

資料 : <表 3>의 慶尙北道 地緣產業現況에서 改作.

工藝品 중에서는 木工藝가 8개 품목(전체의 17.2%), 9개 產地(전체의 12.2%)로 가장 비중이 크고 土·石工藝, 金屬工藝의 순이다.

纖維類는 5개 품목이 7개 產地에서 생산되며 安東布와 尙州郡의 明細가 대표적이고, 紙類는 韓氏와 葛布가 주종을 이루며 특히 2개 품목이 11개 지역(韓紙 6개 產地: 葛布 5개 產地)에서 생산되어서 품목에 대한 產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특색이다.

나. 地域別 分布

慶尙北道の 總 31개 市郡(市 7개, 郡 24개)에 대한 地緣產業의 地域別 分布現況을 보면 4개 市郡(龜尾市, 永川市, 慶山郡, 漆谷郡)을 제외한 27개 市郡에서 최소한 1개 품목 이상의 地緣產業이 개발되어서 대체로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表 4).

慶尙北道에 분포하고 있는 總 47개 품목 중

서 가장 많은 地緣產業의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地域은 金陵郡과 靑松郡으로 각각 5개 품목이 분포하고 있다. 金陵郡에는 工藝品, 林產物, 藥材品, 纖維類, 紙類 등 각각 상이한 地緣商品이 생산되며, 靑松郡에서는 고추, 버섯류(송이버섯, 표고버섯), 韓紙, 陶磁器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 4개 품목을 생산하는 地域은 金泉市, 達城郡, 醴泉郡, 奉化郡, 英陽郡, 盈德郡 등 6개 지역이다.

이들 6개 지역은 金泉市와 達城郡과 같은 平野地域과 그 외의 山地가 많은 지역으로 크게 地域區分을 할 수 있는데 평야지역은 食品類의 비율이 높고(總 8개 품목 중에서 食品類가 5개 품목이며 그 외에는 金泉市의 鑰器(農藥器)와 葛布, 達城郡의 莞草), 반면에 山地地域은 전체 16개 품목 중에서 海岸과 인접한 盈德郡의 2개 水產物(대게, 銀魚)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4개 품목이 山地와 관련된 품목으로 地緣產業은 그 지역의 地形, 經濟活動의 環境 등 地理的 特性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慶州市를 비롯한 7개 지역이 3개 품목을, 善山郡 등 7개 지역이 2개 품목의 地緣產業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5개 지역에는 단 한 품목만이 분포하고 있다. 土產食品의 경우는 歷史性이 큰 3개 市(慶州, 金泉, 安東)에서 모두 生産되고 있으며, 水產物의 分布는 海岸線과 접하고 있는 6개 市郡 중에서 단 盈德郡과 鬱陵郡 등 2개 지역에서만 地緣產業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오히려 內陸地域인 達城郡에 1개 품목이 분포하고 있다.

이상의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地域的 分布 특색을 살펴보면 시로 승격된 것이 시간적으로 오래 되지 않은 龜尾, 永川市와 그리고 大邱直轄市와 인접하고 平野의 비율이 높아 典型的인 農

表 4 慶北 地緣產業의 地域別 分布現況

地 域	品目數	地 域	品目數	地 域	品目數
慶州市	3(4.0)	善山郡	2(2.7)	英陽郡	4(5.4)
金泉市	4(5.4)	軍威郡	2(2.7)	盈德郡	4(5.4)
安東市	1(1.4)	義星郡	3(4.0)	靑松郡	5(6.8)
榮州市	1(1.4)	尙川郡	3(4.0)	永川郡	2(2.7)
浦項市	1(1.4)	聞慶郡	3(4.0)	豊榮郡	2(2.7)
達城郡	4(5.4)	醴泉郡	4(5.4)	淸道郡	3(4.0)
高靈郡	3(4.0)	安東郡	2(2.7)	月城郡	1(1.4)
星州郡	3(4.0)	奉化郡	4(5.4)	迎日郡	2(2.7)
金陵郡	5(6.8)	蔚珍郡	1(1.4)	鬱陵郡	2(2.7)

()안은 構成比
資料 : <表2>의 慶尙北道 地緣產業現況에서 改作.

業地域인 2개 郡(慶山과 漆谷)을 제외하고는 넓은 地域에 걸쳐 분포하고, 3개 품목 이상이 분포하는 지역들은 本道의 中央 低地의 西部를 貫流하는 洛東江과 그 지류가 형성한 侵蝕盆地 및 평야의 周邊地域인 山地地域과 慶州, 安東, 高靈 등 역사적으로 土產品과 民藝品 등 鄉土文化資源이 풍부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分布上의 特性

앞에서 살펴본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業種別, 地域別 分布上의 特性을 정리하면 첫째, 業種別 分布에 있어서는 食品類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도 農產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가 傳統的인 農業國家로 生活必須品으로 工業生産品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農耕生活과 農業의 補助的 機能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또 農產物 이외의 업종도 대부분이 貢納制度和 관련된 地方 特產物이다. 纖維類, 紙類 및 工藝品도 地方 特產物을 이용한 手工業製品이므로 獨立된 産業으로 운영되기보다는 兼業形態로 운영되고 있다.

土產品이 모두 酒類라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으며, 慶尙北道內에서 歷史性이 깊은 慶州,

金泉, 安東市에는 모두 土產品이 분포하고 있다.

纖維類로는 安東布와 尙州郡의 明紬가 대표적이고, 紙類는 韓紙와 葛布가 주종을 이루며 품목에 대한 產地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이 특색이다.

둘째, 地緣產業의 地域的 分布에 있어서는 31개 市郡 중에서 4개 市郡을 제외한 全地域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道內에서 地緣產業의 分布比率이 높은 지역들을 2大 地域群으로 나눌 수 있다. 즉 土地利用의 集約度가 낮아 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낮고, 他地域으로의 人口유출이 많으며 또한 工業化의 進進이 낮은 山地地域(李哲雨 1980, p.19)과 新羅文化의 중심지인 慶州, 伽倻文化圈에 속했던 지역과 安東을 중심으로 한 儒敎文化圈 地域 등 傳統文化資原이 풍부한 지역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林產物과 이것을 이용한 手工業 製品이, 후자는 역사성이 큰 民俗品이 대표적 업종이다.

그리고 地緣產業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들은 新興都市와 大邱周圍의 主穀生産 위주의 平野地域들인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地緣產業을 발굴 개발하여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2.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地域別 開發適性業種

지금까지 慶尙北道의 地緣產業의 業種別, 地域別 分布 및 분포상의 特性을 고찰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慶尙北道內 전체 31개 市郡 중 27개 市郡의 74개 產地에서 總 47個 품목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 地緣產業 중에서 ① 農工並進의 調和를 이룰 수 있고, ② 地域特產物을 가공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 ③ 農村勞動力이란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변동하므로

表 5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地域別 開發適性業種

地 域	業 種	地 域	業 種	地 域	業 種
慶州市	民俗工藝(金屬·石工藝), 釀造(法酒)	善山郡	釀造(藥酒) 食料品加工(땅콩, 단무지)	盈德郡	韓紙, 통조림(水産物, 북숭아)
金泉市	鑰器(農業器), 葛布, 農業用器具	軍威郡	花紋席, 돛자리	靑松郡	韓紙, 陶磁器, 食料品加工(머싯)
安東市	釀造(酒類), 農業用器具	義星郡	韓紙, 食料品加工(마늘, 고추)	永川郡	싸리제품, 食料品加工(과일)
榮州市	葛布, 鑛山用機械	尙州郡	織物(明紬), 陶磁器, 꽃감	淸道郡	陶磁器, 무쇠솥, 食料品加工 (과일)
永川市	食料品加工(사과, 양파) 農業用器具	開慶郡	陶磁器, 葛布, 韓紙, 纖維(세타, 양말, 장갑)	醴泉郡	國弓, 陶磁器, 韓紙, 葛布
浦項市	竹製品(箭筒, 竹竿)	安東郡	織物(安東布), 河回탈	迎日郡	陶磁器, 竹細品(낙시대)
達城郡	莞草(슬렁커), 畜産物加工, 食料品加工(양송이, 땅콩)	奉化郡	木工藝, 食用油(깨, 아주까리), 鑰器	漆谷郡	畜産物加工
高靈郡	窯業(陶磁器, 기와) 石工藝(石硯)	蔚珍郡	韓紙, 水産物加工, 漁網	月城郡	陶磁器, 畜産物加工
星州郡	食料品加工(마늘, 땅콩)	英陽郡	水工藝, 石工藝(石硯)	鬱陵郡	水産物加工, 山菜
金陵郡	韓紙, 莞草, 葛布, 食用油(참깨, 들깨, 아주까리)	榮豐郡	人蔘加工, 纖維(人造絹)	慶山郡	釀造(사과酒, 식초)

勞動力 利用이 계절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수 있고, ④ 郷土文化 창달이라는 價値 概念이 뚜렷한 業種과 ⑤ 현재로서는 地緣產業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地緣產業이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地域事情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통을 창출, 내실화할 수 있는 업종을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地域別 開發適性業種으로 선정하였다(表 5).

이상과 같이 선정된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지역별 開發適性業種은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龜尾市를 제외한 30개 市郡에 대하여 선정되었는데 대부분이 地域別 資源과 傳統技術을 이용하는 업종들이다. 그밖에 金泉市, 安東市, 永川市는 주변에 넓은 農村 背後地를 가진 地域中心 都市로 農業用 연장과 같은 農業用機械 및 器具를, 榮州市도 역시 鑛山地域을 背後地로 가졌기 때문에 鑛山用 機械製造業을 開發適性業種으로 선정하였으며, 炭鑛地域인 開慶郡에는 女子 遊休勞動力을 이용한 세타, 양말 및 장갑 등을 생산하는 纖維加工業을 適性業種으로 선정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 3大都市인 大邱直轄市와 인접한 漆谷郡과 이러한 市場性으로 형성된 道內에서 第1

의 酪農團地가 조성된 達城郡 그리고 觀光都市인 慶州市와 南東臨海工業地域의 일부인 浦項과 蔚山市 등의 消費市場과 인접해 있으면서 道內에서 肥肉牛와 젓소의 頭數가 가장 많은 月城郡에는 畜産物加工을 새로운 開發適性業種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達城, 星州, 金陵, 善山, 義星郡 등은 洛東江 本支流 流域에 발달한 沖積地에서 많이 생산되는 特用作物을 원료로 이용하는 食料品加工業의 발달이 기대되며, 慶山郡에는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과를 이용한 과일酒와 식초 등을 생산하는 釀造業을 開發適性業種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開發適性業種을 선정 발전시킴으로써 이들 업종뿐만 아니라 相關산업 분야에도 雇傭을 증대시키고 產業間 聯關效果를 높임으로써 地域經濟의 對外依存度를 줄이고 地域發展을 가져와 地域隔差를 완화시키고 均衡開發을 유도하여 地域成長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3. 慶尙北道 地緣產業의 開發方案

종래의 地域開發戰略은 高度成長을 배경으로 자칫하면 어떤 지역이거나 무조건 企業誘致에

치우치기 쉬웠으나 企業의 유치는 어디까지나 地域開發戰略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므로, 地域開發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어느 一定 地域으로의 지나친 人口 集中現象을 지양하고 각 지역에 주민이 정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資源, 技術을 이용하여, 地域的 特性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는 地緣產業에 바탕을 둔 地域開發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地緣產業의 開發方案을 地域的 측면에서의 開發方案과 行政 및 財政的 측면에서의 支援方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 地域的 側面에서의 開發方案

「地緣產業」이란 「地域」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地域住民이 중심이 되어 開發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地域的 측면에서의 開發方案으로서의 첫째, 地緣產業의 第1條件은 역시 그 지역의 賦存資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地緣產業의 內實化를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地緣產業의 原料를 供給하는 第1次產業의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또 이러한 資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適定時期에 原料調達과 製品販賣를 위한 流通의 效率性을 높여야 한다.

둘째, 地緣產業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相互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地域的 혹은 隣接地域의 각종 地緣產業을 연관시켜 相互 有機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地緣產業의 相互間에 한 地緣產業의 生産품이 다른 地緣產業의 生産財로 이용될 수 있어 販路를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產

業間 前方 및 後方聯關效果(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異種의 地緣產業이 연결될 때 새로운 地緣產業의 창출과 개발도 가능하다. 세째, 技術의 향상과 技能人力의 養成이 필요하다.

地緣產業의 製品은 國民 생활의 질과 문화적 욕구의 高度化와 다양화를 충족시켜 줄 Quality 商品으로서 個性美 뿐만 아니라 정교함 등 品質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地緣產業의 技術改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技能人力의 양성이 필요하지만 地緣產業은 中小 및 零細企業形態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專門技術人力의 육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여건에서 技術人力의 교육을 위해서는 地域的 企業集團을 형성하여 共同投資를 통한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자체의 技能人力의 조달을 해결하고, 慶尙北道內의 각 지역별로 기존의 大學 및 專門大學에 그 地域 地緣產業의 技術을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설치하여 技能人力을 육성·연수시키고, 그 지역의 文化를 傳承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研究所를 운영하여, 產品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史的 考證이나 生産過程의 科學化와 國內外 他地域의 地緣產業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하여 製品의 質을 향상시키는 등 產學協同 體制를 活成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技術改善을 위해서는 專門化 및 系列化가 필요하다.

나. 行政 및 財政的 側面에서의 支援方案

地緣產業 開發育成의 주체는 물론 地域住民이기는 하지만, 行政當局의 行政的, 財政的 支援對策이 필요하다.

첫째, 地緣產業의 대표적 업종인, 鄉土를 대표할 수 있고 商品의 價値가 있는 特定民藝品이나

土産品을 개발한 技能者가 企業성과 의욕을 잃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그 제품의 생산을 技能者에게 特許權을 賦與, 保護하여 地域土着화와 생산을 振興시키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地緣産業과 같은 地域的으로 特화된 生産品은 販路開拓에 적극적인 行政支援施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全國 혹은 各 地方民俗行事와 觀光産業과 연결한 체계있는 판매망과 대도시 소비처와 販賣網의 확보와 海外市場 개발에 관계 기관과 商工會議所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地緣産業은 그 지역의 獨自性이나 個性이 강한 지역일수록 발전할 소지가 많으므로 地域文化를 개발 육성하는 것이 地緣産業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地緣産業은 產地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 施設構造 및 資本投資面에서 零細性を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地緣産業이 정착될 때까지는 일정한 규모의 財政・金融上的 지원이나 稅制上的 특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地方文化의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IV. 要約 및 結言

本研究는 과거 總量經濟의 高度成長과 據點開發戰略으로 야기된 地域隔差 완화 및 地域發展을 위한 內發的 開發哲學에 기반을 둔 地緣産業 개발방안에 대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慶尙北道를 事例研究地域으로 선정하여 慶尙北道 地緣産業의 業種別, 地域別 分布現況 및 特性을 분석하고, 地域別 開發適性業種을 선정하고 그

開發方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緣産業開發의 理論的 考察에서는 地域政策的 측면에서 內發的 開發의 必要性 및 이를 위한 手段과 地緣産業의 概念, 類型分類, 지역의 經濟 및 文化 등 여러 방면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고찰하였다.

둘째, 慶尙北道 地緣産業의 분포 및 특성을 살펴보면

(1) 業種別 分布에서는 總47개 품목이 74개 產地에서 생산되고 品目別로 보면 食品類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食品類 중에서는 農産物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傳統的인 農業國家로 農業外 産業은 農耕生活와 農業의 補助的 機能을 수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食品類 다음으로는 工藝品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纖維類, 紙類順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土産品은 모두 酒類인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으며, 道內에서 歷史性이 깊은 慶州, 安東, 金泉市에서는 모두 생산된다.

그리고 纖維類로는 安東市와 明絢가 대표적이고, 紙類는 韓紙와 葛布가 주종을 이루며 품목에 대한 產地의 比率이 높은 것이 특색이다.

(2) 地域別 分布에 있어서는 總 31개 市郡 中에서 27개 市郡에 최소한 1개 품목 이상의 地緣産業이 분포하고 있어서 대체로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道內에서 地緣産業의 分布比率이 높은 지역은 山地地域과 傳統文化資源이 풍부한 지역을 들 수 있는데, 山地地域에는 林産物과 이를 이용한 手工業製品이, 후자의 경우에는 歷史性이 큰 民俗品이 대표적 업종이다.

그리고 地緣產業이 분포하지 않은 地域은 新興都市와 大邱市 周邊의 主穀生産 위주의 平野 地域들인데, 이들 地域에 대해서도 地緣產業을 발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세째, 地域別 開發適性業種 選定에서는 慶尙北道 地緣產業 중에서 農工並進의 調和를 이룰 수 있고 郷土文化 暢達이라는 價値概念이 뚜렷한 업종과 현재로서는 地緣產業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地域事情을 고려하여 地域別 開發適性業種을 선정하였다(表 5 참조). 새로운 道內 開發適性業種으로는 金泉, 安東, 永川市에 農業用 機械 및 器具, 榮州市에 鑛山用 機械製造業을, 炭鑛地域인 聞慶郡에는 纖維加工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大消費地에 인접한 達城, 漆谷, 月城 郡에는 畜産物加工業을, 洛東江을 끼고 있는 5 개 郡에는 食品加工業을, 慶山郡에는 사과를 이용한 釀造業을 각각 開發適性 業種으로 선정하였다.

네째, 地緣產業의 開發方案으로는,

(1) 地緣產業에 原料를 공급하는 1次産業의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또 資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2) 地域內 혹은 隣接地域의 各種 地緣產業을 相互 有機的으로 개발함으로써 連繫性을 갖도록 시스템化 開發과 技術向上 및 專門技能人力の 양성이 필요하다.

(3) 特定民藝品이나 土産品을 개발한 技能者 에게 特許權을 부여, 보호하여 地域土着化와 생산을 진흥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地緣產業과 같은 地域的으로 特화된 生産品은 販路開拓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地緣產業은 産地를 형성하기는 하나 施設

構造 및 資本投資面에서 零細의이므로 정착될 때까지 財政・金融上의 支援이나 稅制上의 특혜 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慶尙北道の 地域開發政策代案으로 지緣產業의 開發方案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하였으나 慶尙北道란 特定地域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불과하므로 全國的 次元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더욱기 地緣產業 이외의 産業과 地域 의 諸般 與件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地域開發의 政策代案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추구해 온 開發方式에 대한 반성과 開發哲學의 轉換을 시사한다는 데에 本 研究의 意義를 두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姜秉周, “地域開發 戰略으로서의 地緣產業 開發에 關 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 文 1981.
-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名要覽」, 1983.
- , 「韓國地誌」, 1980.
- 慶尙北道, 「地方特産物의 發掘・保存 및 開發」, 1982.
- 金安濟, “地域間 經濟的 隔差에 關한 研究,” 「環境論 叢」, 第1卷第1號, 1984
- 朴仁鎬, 地域開發의 史的 敎訓과 提言, 「새마을・地域 開發研究」, 第5輯, 1984. 嶺南大學校 地域開發 研究所.
- 朴陽春, “慶北工業의 開發構想과 適性業種,” 「慶大産 業開發研究所 研究報告」, 第5卷, 1977.
- 元慶烈, “朝鮮時代初期 慶尙道地域의 土産物 分布에 對한 地理的 考察,” 「春川敎大論文集」, 第22輯, 1982.
- 柳佑益, “韓國地理學에 있어서의 地域政策의 爭點,” 「地理學論叢」, 第10號,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 學地理學科, 1983.
- 李哲雨, “韓國落後地域의 類型分析과 開發戰略,” 慶北 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碩士學位論文, 1980.
- 崔相哲, “地方定住生活 計劃의 背景, 必要性, 概念,” 地域開發의 方向摸索을 爲한 「세미나 主題發表 論文集」, 1981.
- NIRA, 「地方からの産業振興」, 1979.

- 青成忠男, 「地域主義の時代」, 日本經濟評論社, 1980.
- , 「地域の變革と中小企業」(上・下), 日本經濟評論社, 1975.
- , “内發的 地域開發を考ふる 1. 2,” 「地域開發」, 1978. 7. 8月號.
- , “地場産業の現代的意義,” 「地域開發」, 1980. 7月號.
- 青野壽彦, “地場産業と地域振興,” 「地域開發」, 1980. 7月號.
- 山崎充, 「變る地場産業」, 日本經濟新聞社, 1974.
- 禁戸哲, 青成忠男, 「地域社會と地場産業」, 日本經濟評論社, 1980.
- A.D. Hirschman,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Economic Growth,”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M.I.T. Press,” 1969.
- Brösse, U., *Raumordnung Spolitik*, Walter de Gruyter 1975.
- J. Friedmann,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cy*, M.I. T. Press, 1966.
- ,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cy: A Case Study of venezuela*, M.I.T. Press, 1970.
- J. Westergaard and H.Resler, *Class in Capitalist Society*, Penguin Book, 1975.
- R.M. Moseley, “The Spatial Impact of Growth Centres: A Case study of Brittany and East Anglia,” Ph.D.Diss. University of Reading, 1972.
- W.Alonso, “Urban and Regional Imbalances in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17. No.1, The Univesity of Chicago 1968.